

안녕하세요. 신소재공학부 15학번 황준우입니다.

저는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공정설계 직무로 입사하여 화성캠퍼스에서 불량분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반도체 기업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철강 교과에 관심이 있어 거의 대부분 금속교과를 이수했습니다. 60학점 이상을 금속 관련 전공으로 이수했고, 반도체 관련 교과는 반도체공정과 디스플레이공학 두 개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 싫어 취업 과정에서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 등 회사를 가리지 않고 지원하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님들에게 제가 보고 들으며 느낀 나름의 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고,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자하는 말에 대한 간단한 요약입니다.

필요없는 경험은 없다.

영어 성적은 기본만

자소서를 위해 경험을 정리하기

직무에 대한 이해도 중요

취업 시즌 전, 3개의 자소서를 써보기

자신만의 강점을 만들어라

1. 대학 생활

대학에 처음 들어오고 1학년 때 동기들과, 선배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서 F학점을 4개나 받고 그렇게 1학년 1학기 학점 1.83 받았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취업이라는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에, 과 집행부도 하며 놀았지만 학점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여 학점을 올렸습니다.

3학년 때부터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여러 취업 프로그램을 들으며 취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같은 프로그램들은 모두 참가해 보았고,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3학년 2학기가 끝난 후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생 선배들에게 여러 조언을 받기도 하였고, 컨설팅 선생님께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4학년때부터 인적성 준비를 병행하였습니다.

제가 가진 스펙은 토스 6, 금속재료기사, 반도체 공정실습, 학점 4.06이 전부입니다.

• 학점

학점은 기업에서 학교 생활의 성실성과 전공에 대학 역량을 평가하기에 가장 쉬운 스펙입니다. 학점이 높다고 무조건 합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4년 동안 전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수업에 얼마나 성실히 임했는지를 볼 수 있으므로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만 듣는 것은 전공역량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소재공학부라는 과의 특성상 얇고 넓게 배우기 때문에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직군 외 전공과목들을 들으면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습니다.

제가 봤던 모든 면접에서 학점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증 질문을 받았고 잘 방어해 낸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스펙

흔히들 스펙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학력, 학점, 자격증, 어학, 대외활동 등이 있습니다. 스펙이 많은 것은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의 경험에도 배운 것, 느낀 것이 있다면 좋은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철강회사에 관심이 있었기에 금속재료기사를 취득하고, 스틸챌린지에 참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 기업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금속에 대해 배운 후 더욱 심화된 전공 역량 습득을 위해 금속재료기사를 취득하였다고 어필하였고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 경험

제가 느낀 바로는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해보려고 노력한다면 자기소개서에 쓸 말이나 면접에서 자신이 한 말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서류

저는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 싫어 최대한 많은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43개의 기업에 서류 지원하였고, 겨우 4개의 서류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에는 어울림의 컨설팅 선생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20번 이상의 상담을 받으며 자기소개서를 여러 번 다듬고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기소개서이고 자신의 색이 나타나야 하므로 상담 선생님의 말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선생님에게 컨설팅을 받아 보는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백 개의 서류를 읽는 인사팀의 특성상 글이 읽기 힘들면 꼼꼼히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제목을 통해 글 전체에서 하고자하는 말을 나타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문단 나눠서 읽기 쉽게 적으려 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1500자 항목이 있어서 집중력 있게 읽기 힘드니까 소제목만 읽어도 무엇을 어필하는지 대충은 알 수 있게 적었습니다.

서류 접수 기간 전에 자신이 가고싶은 기업의 자기소개서 3개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기간이 되면 무수한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쏟아지기 때문에 공고가 뜬 후에 작성하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3. 인적성(GSAT)

대부분의 대기업 인적성 시험은 GSAT를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적성을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GSAT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기간에 벼락치기를 하기보다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울림의 대기업 인적성 강의나 인강 등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을 하고 꼭 시간을 재며 푸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인적성을 본다면 책이 아닌 A4용지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저는 시중에 있는 모든 책을 푼다고 생각하였고 인적성 책 7권과 봉투 모의고사 5개를 2회독한 후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4. 면접

학부때, 발표를 많이 맡은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면접은 매우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최대한 컨설팅을 통한 모의면접과 면접스터디 참가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 의견도 듣고 여러 사람앞에서 말하는 연습하면서 최대한 떨지않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면접은 볼때는 아이 컨택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감독관의 눈을 쳐다보며 자신감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개의 면접스터디와 컨설팅 선생님과 20번 이상의 모의면접을 통해 최대한 면접환경에 익숙해지고 돌발 질문이나 생소한 질문에도 잘 대처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4-1. 인성 면접

인성 면접이 전공 면접보다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인성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질문을 포함해 400개 정도의 예상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질문을 모의면접관에게 제공하며 모의면접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스크립트 쓰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질문이 나올지 작성하며 그에 대한 답을 고민하고 실제로 받아보는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서 엄청 깐깐한 면접관이 저를 떨어트리기 위해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예상질문을 작성했습니다.

4-2. 전공면접

삼성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삼성에서는 입사하게 되면 반도체의 정의부터 다시 교육합니다. 교육을 처음부터 싹 다시해주는 만큼 반도체 공정, 구조 등 반도체에 관심 있다 정도만 공부하면 될거같습니다. 삼성은 제가 무슨과목들었는지 다 알고있으니 여기서 뭐 배웠나? 직무 관련 경험에 대한 질문 등등으로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도 질문)

다른회사는 인성보다 전공면접이 더 힘들었는데 삼성은 전공이 훨씬 쉬운거같습니다.

전공 면접은 예상질문 100개로 정리해서 저난도~ 고난도 문제 만들었는데 저~중까지만에 안 나왔습니다.

회사에는 학점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가 좋지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외활동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면접에 많은 도움을 주신 어울림 컨설턴트 선생님, 많은 조언을 주신 교수님,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준 주변 사람들 덕분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취업을 준비하며 가장 힘이 되었던 말을 해 주고 싶습니다.

‘취업은 99번 패배하더라도 1번 승리한다면 성공한 것이다’.

모두 파이팅하세요! :)

급하게 작성해서 더 많은 말을 하지 못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wxxw1996@naver.com

010-7661-9494